

2015년도 5급 공채,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

— 5급 공채 3,018명(행정 2,353, 기술 665), 외교관후보자 309명 첫 관문 통과 —

1. 인사혁신처(처장 이근면)는 201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(<http://www.gosi.go.kr>)를 통해 발표하였다.
 -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은 지난달 7일 치러졌으며, 1차시험 합격자는 5급 공채가 3,018명(행정직 2,353, 기술직 665), 외교관후보자가 309명이다.
2. 올해 343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에는 제1차시험에 총 1만1,509명이 응시해 33.6: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8.75점으로 지난해 79.29점에 비해 0.54점 낮아졌다.
 - 일반행정(전국모집)의 합격선도 76.66점으로 지난해(77.50점)에 비해 0.84점 낮아졌다.
 - 가장 높은 합격선은 전국모집의 경우 재정직과 국제통상직에서 80.00점,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일반행정직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76.66점이었다.
 -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.2%인 1,032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3.6%(1,214명)을 약간 웃돌았다.
 -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.0세로 지난해(26.1세)와 비슷했다. 연령대는 24~27세가 1,519명(50.3%)으로 가장 많았고, 20~23세가 719명(23.8%)으로 뒤를 이었다. 33세 이상 합격자는 205명(6.8%)이었다.
 - ※ 2009년 응시연령 상한규정(32세) 폐지
 -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(전국) 59명, 재정 16명, 일반기계 3명, 일반도목 4명 등 8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.
 -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법무행정 5명, 재정 25명, 국제통상 7명, 일반기계 1명, 전기 1명, 일반도목 3명, 건축 1명, 전산개발 3명 등 46명이 추가로 합격하였다.
 - ※ 국제통상은 남성이 추가합격, 타 모집단위는 여성이 추가합격하였음

3. 37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에는 모두 806명이 응시해 21.8: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.
-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3.50점으로 지난해(72.01점)보다 1.49점이 올랐다. 일반외교의 합격선은 70.00점으로 지난해(65.00점)보다 5점 높아졌다.
 -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3.4%인 196명이 합격하여 지난해(211명, 63.9%)에 비해 약간 줄었다.
 -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.5세로 지난해(26.7세)와 비슷했고, 연령별로는 24~27세가 168명(54.4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28~32세가 60명(19.4%)으로 뒤를 이었다. 33세 이상 합격자는 26명(8.4%)이었다.
 -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외교 분야에서 3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.
4.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“이번 시험에서 국가 핵심인재로서 공직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”면서, “국가관과 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”라고 말했다.
5. 학위와 근무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‘외교전문’분야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3.25.(수)~4.10.(금)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에 제출해야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5급 공채 제2차시험은 행정직이 6.30.(화)~7.4.(토), 기술직이 8.4.(화)~8.8.(토)에,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은 5.14.(목)~5.15.(금)에 실시된다.